

국무위원 토론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마음이 좀 느슨하고 여유 있게 보내길 원할 텐데 딱딱한 토론을 잡았습니다.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가치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예산에 가치와 목표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목표를 향해 정확히 표적이 맞춰져 있고 전략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사전적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더 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개혁과 더불어 예산제도 개혁해 보자고 해서 여러 변화가 시도되고 그 과정의 하나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대체로 예산은 그 이전에는 국무위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짜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많이 해서 대강 짜 놓으면 정당에서 또 줄다리를 하고 국회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당정협의 국회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정부안에서 예산 짜는 것이라도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며 예산을 짜고 부처 간에 토론을 거쳐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입니까. 개별부처를 맡는 국무위원들은 각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전체에 가치지향과 전략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이 나올 수 있어 토론시간을

잡았습니다. 혁신을 얘기하는데 학습 없이 혁신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의 학습으로 생각하고 또 합의를 얘기하는데 토론이 없이는 합의에 대해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한다고 생각하고 토요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람 갖고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처의 주장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항상 전체의 목표를 함께 고려하며 균형 있게 토론되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